

맑고

푸르름을

청하다

태평무

합
화조
월하

진주교방굿거리춤
달천무

춤 아리랑

淸 靑 請

韓國舞同人會「淸·靑·請」

2022.6.25.(토) 17:00

서울남산국악당



춤, 그 푸르름에 대하여...

따사로운 바람이 푸르름을 넘나드는 신록의 계절 6월,
「청(淸)·청(靑)·청(淸)」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일상이 멈춘듯했지만,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동인들의 꾸준한 활동과 쉽없는 열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땀 한땀 쌓아온 노력들이 서로에게 큰 성장을
이루어 내게 하는 디딤돌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2년 만에 팬데믹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는 이 시기와
푸르름이 만개하는 순간을 맞이하여, 韓國舞同人會는 한국전통춤을 통해
관객에게 ‘정화’와 ‘치유’의 에너지를 전하고자
기획공연 ‘맑고 푸르름을 청하다 : 청(淸)·청(靑)·청(淸)’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선보이는 청(淸)·청(靑)·청(淸)은
스승님께서 물려주신 예술적 의식과 춤사위를
범고창신(法古創新)의 마음으로 깊이 있게 담았습니다.

동인들의
숨 하나 하나
고운 디딤을 모아
춤꼴을 피워 봅니다.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의 이 공연이 소중한 일상으로의 안내가 되시길
바라며, 충주의 달천강을 모티브로 큰 의미를 담아 흔쾌히 함께해준
청주시립무용단 김진미 예술감독과 공동기획으로 정성을 다해주신
서울남산국악당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준 동인회 회원들에게
사랑과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6월 25일
미송 박시중



우리의 일상은 맑고 푸르름이었습니다.

6월 하늘의 푸르름은 맑은 바다색 처럼 청명합니다. 우리의 일상도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수평선처럼 이질감없는 경계의 앞에서 있는 요즘입니다.

「韓國舞同人會 청(淸)·청(靑)·청(淸)」은 다시 찾아가고 있는 회복의 시간속에서 그동안 팬데믹으로 목말랐던 우리 삶의 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정성스럽게 마련한 소중한 무대입니다.

스승님의 예술관과 철학이 담긴 작품을 통해 인간의 서사와 심성을 단련하며 성찰과 통찰을 통해 돌아보고 내다보며 춤을 마주합니다.

韓國舞同人會는 박시중 선생님의 정갈하고 절제된 춤사위로 구성된 주옥같은 레퍼토리를 근간으로 근·현대, 전통을 아우르며 한국춤의 전승과 맥을 이어가고 정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연에서는 스승님께서 새롭게 구성한 근·현대 춤양식과 전통춤을 기반으로 한 작품 ‘춤아리랑’, ‘슴(합)’, ‘花鳥(화조)’, ‘月下(월하)’를 선보이고,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한영숙류:보유자 박재희)의 무대 구성을 확대하여 태평무의 가치와 확장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청주시립무용단 김진미 예술감독님이 함께하여 춤으로 만나 추억하고 나누며 동행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공연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귀한 시간 되시길 소원하며, 상록수처럼 변함없이 춤과 삶의 근본을 일깨워 주시는 스승님께 同人 모두를 대표해 고개 숙여 예를 올립니다.

끝으로 韓國舞同人會를 淸 해주신 서울남산국악당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6월 25일

韓國舞同人會 회장 박정선

韓國舞同人會

한국무동인회

단체
소개

한국무동인회는 한국춤의 본질에 대한 바른 해석과 영원한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박시종 대표의 춤에 대한 철학을 함께 공유하며, 한국춤에 대한 바른 전승과 올곧은 방향성을 지키고자 춤으로 뜻을 함께하는 同人들이 박시종 대표를 중심으로 2017년 12월에 발족한 단체이다.

清|靑|請

청·청·청

공연
소개

韓國舞同人會 「清·靑·請」은 '맑고 푸르름을 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봄을 보내고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 즈음에 자연의 순리에 따른 계절의 변화처럼 어느덧 팬데믹을 지나 엔데믹 시대로 접어드는 이 시기에 우리 전통춤과 그 맥을 통해 관객에게 淨化(정화)와 治癒(치유)의 에너지를 전하고자 한다. 나아가 우리들의 삶에도 맑고 푸르른 순간이 가득해지기를 소망하는 뜻도 담겨 있다.

1

태평무 太平舞 (한영숙·박재희)

태평무는 한성준선생이 1930년대에 나라의 독립과 국태민안(國泰民安)을 염원하여 창안한 춤으로, 오늘날 한영숙류 태평무와 강선영류 태평무로 이원화되어 발전되어 온 한국의 대표적 전통춤이다.

오늘 공연되는 한영숙류 태평무는 홀춤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간문화재(승무보유자)이셨던 故한영숙 선생이 자신의 예술적인 감각으로 한성준 선생의 태평무 형식을 더욱 가다듬었으며, 그의 제자 박재희 선생에 의해 그 전통성을 잃지 않으면서 미학적 발전을 거듭하여 예술적 품격을 더욱 높여 온 춤으로, 지난 11월 25일에 박재희 선생이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한영숙류 태평무의 제1대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박재희 선생의 태평무는 독특하고 세밀한 발놀림과 발디딤에서의 묵중하고도 정교한 품새, 우아하고도 절도 있는 손놀림, 단아하면서도 고아한 자태는 어떤 춤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춤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 특히 양손으로 남색 겹치마를 살짝 들어 올릴 때 보이는 붉은색 안치마와 하얀 버선발은 한국적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준다.

음악의 장단 편제는 새가락별곡의 푸살로 시작하여-터벌림-올림채-연결채-발빠드레-겹마치기-도살풀이-도살풀이몰이-잡은굿거리로 끝을 맺는 그 어떤 춤보다도 변화가 많은 다양하고 독특한 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식은 조선시대 왕비의 복식으로 남색 스란치마(혹은 대란치마)와 붉은색 안치마에 옥색(혹은두록색) 당의를 입는다. 당의에는 가슴과 등에 수 놓인 보를 달고 머리는 단아한 쪽진 머리에 검은색 족두리를 쓴다.

출 연
박정선
홍명원
김민화
음선아
김은수
송효산
이세이
정선아
최유란
어 진
김태희

2

습 합

박시종의 전작 열락(悅樂)의 듀엣 부분으로 음양(陰陽)의 조화 속 미묘한 대비를 이끌어 낸 작품이다.

이 작품이 품고 있는 내재적 특징은 버꾸와 경고의 신명나는 춤사위와 서로 맞물리는 듯 감아도는 소리의 진동을 통해 우리 삶의 희락(喜樂)을 표현하였다.

출 연
박정한
김지성

3

화 조 花鳥

천지 자연속에 꽃과 새가 한데 어우러져 노니는 아름다운 풍경을 한국적인 감성과 정서로 재해석한 부채춤이다. 박시종의 서정적 아름다움과 탐미적 움직임은 이 춤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출 연
여인(꽃) 이세이
학 전건호

4

월 하 月下

달빛 아래의 고혹적인 여인의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이 작품의 특징은 박순아의 청아한 가야금 선율과 박시종의 섬세하면서도 절제된 춤사위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서정적이면서도 호소력이 짙은 아름다운 한국여인의 자태를 표현하였다.

출 연
박정선

5

진주교방굿거리춤

진주교방굿거리춤(경남무형문화재 제21호)은 진주 지방의 교방에서 추어지던 춤으로 1997년 1월 故김수악 선생이 보유자로 지정되어 전승되어왔으며 현재는 이수자들에게 의해 이어지고 있다.

진주교방굿거리춤은 한국 춤의 네 가지 요소인 한, 흥, 멋, 태를 고루 갖춘 춤으로서 차별하면서도 끈끈하고 섬세하면서 애절한 무태로 정, 중, 동의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어 무아지경에 이르게 하는 매력을 갖추고 있는 춤이다.

진주교방굿거리춤의 장단 형식은 느린 굿거리장단으로 시작하여 흥이 오르면 빠른 굿거리장단으로 넘어가고 다시 느린 굿거리장단으로 마무리 짓게 된다.

복식으로는 남색치마에 같은 색의 1.5m 길이의 끈과 남색끝동에 자주 깃 고름이 달린 노란색의 미색저고리를 입는다.

소품으로는 작은 소고와 큰 소고를 사용한다.

출 연
전건호
홍명원
김민화
김혜연
정선아
최유란
김태희

6

달천무

達川舞

고집스레 위로, 위로 흐르는 달천(達川)

그 위로 윤슬되어 흐르는 달 건져내어 숨 차고 손 덥게 바빈다.

충주의 달천강을 모티브로 한 달천무(達川舞)는

역류된 세상을 향한 외침이고 달램이다.

내재적 정신문화를 모체로 한국춤의 참 맥을 찾는

중원의 춤꾼 김진미로 부터 풀어내는 씻김과 기원의 춤이다.

달디단 그 물이 쓰디쓴 오늘에 고(告)하는 춤의 노래가 시작된다.

역류하는 것은 비단 물만이 아니다. 넘어야 될 모든 파고(波高)의 눈물이다.

그 눈물을 닦아내고자 말없이 북으로 향하는

달천(達川)에 몸을 던져 스스로 강이 된다.

김진미의 춤 독백이 물 위로 윤슬지듯 여울진다, 흐른다

무천(舞天)의 행렬, 달천무(達川舞)이다.

안무 및 출연
김진미

글 이주영

7

춤아리랑

살풀이

아리랑은 우리 서사의 응축이다. 이 땅의 시공간에서 벌어졌던 삶의 이야기가 단 3음절에 농축되어 있다. 각 지역마다 다양한 사설의 아리랑이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일견 무의미해 보이는 여음‘아리랑’에 들어있는 호흡과 숨결이다. 그리하여 모든 아리랑에 공통으로 담겨 있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는 결국 우리네 모든 삶에 바치는 진혼의 노래다.

박시중의 ‘아리랑 살풀이’는 수렴과 확산이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과 공간 속에 증발되었던 삶의 이야기를 불러 모으고, 다시 그들의 자리로 가만히 떠나보내는 작업이다. 삶이란 결국 희로애락의 리듬인 것. 생과 사, 희와 비, 애와 중의 길항 작용으로 그의 몸은 한없이 강(強)하며 그지없이 유(柔)하다. 형체 없는 마음이 몸으로 구현되는 현장의 실사(實寫)에 잠시 숨이 멎는다.

박시중의 춤 <아리랑>의 요체는 균형이다. 삶의 서사와 그에 따른 감정들을 천·지·인 합일의 몸짓으로 중심을 잡아간다. 신의 마음인 하늘, 못 생명들의 터전인 대지, 그 가운데서 하늘과 땅을 잇는 인간, 그 삼위일체의 춤을 완성했다. 그의 ‘아리랑 살풀이’는 총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무(天舞), 지무(地舞), 인무(人舞)다. 하늘의 뜻과 땅의 정기, 인간의 마음이 융화되어 있다. 그의 몸짓에 공간의 여백이 입체적으로 살아난다. 그의 손끝에서 침묵의 언어가 난분분하다. 발걸음이 살풋살풋 희로애락의 경계를 넘나든다. 그의 몸이 땅과 하늘을 잇는다.

출 연
김지성
전건호
박정선
홍명원
김민화
음선아
김은수
송효산
김혜연
이세이
정선아
최유란
어 진
김태희

글 윤기윤



무(無)로 돌아간 무(舞)



맑고 푸르름을 청하다





대표 박시중

- 韓國舞同人會 대표
- 박시중무용단 대표
- 경남무형문화재 제21호 진주교방거리춤 이수자
- 한양대 박사
- (사)한국춤협회 부이사장
- (사)대한무용학회 이사
- (사)한국무용협동조합 '춤에든' 이사
- 청주시립무용단 3대, 5대 예술감독 역임
- 한양대, 한예중, 세종대, 한성대, 청주대 겸임교수 및 강사 역임

- 2021년 2021 대한민국무용대상 '춤타올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 2019년 한국춤평론가회 2018춤평론가상 특별상 수상
- 2018년 제1회 머췌어 톨모델상 수상
- 2014년 서울문화투데이 제5회 문화대상 무용부문 최우수상 수상
- 2013년 제26회 한국무용제전 '염화미소' 우수작품상 수상
- 2012년 대한민국무용대상대상 솔로&듀엣부분 '염화미소' BEST5 수상
- 2012년 제33회 서울무용제 '나와 나타샤와 시인' 대상, 연기상 수상
- 2010년 대한민국 문화예술 '달의노래' 안무감독상 수상
- 2008년 PAF 올해의 안무상 '달의노래'
- 2006년 제15회 전국무용제 '그 바람의 신화' 개인연기상 수상
- 2004년 제13회 전국무용제 '가람푸리 가얏고' 금상 및 개인연기상 수상
- 200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진무용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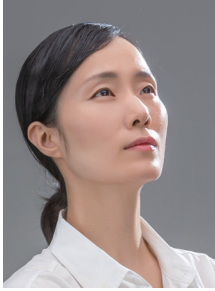
섬세한 감성과 기품있는 춤사위로 주목받고 있는 무용가 박시중은 한국무용의 서정적 아름다움과 시적(詩的) 춤 언어를 순백의 깨끗함과 섬세한 호소력으로 풀어낸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녀가 안무한 작품에는 한국적 정서와 자연의 색채가 잘 녹아들어 있으며, 내면의 포용력과 날카로운 감각, 깊이 있는 자기성찰을 통하여 이끌어내는 무언(無言)의 메시지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일상의 나른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그녀의 춤 화두(話頭)인 “소리를 통한 움직임의 추구”를 통해 한국무용계에 새로운 양식적 특성을 제시하고, 풍경화 같은 무대와 단단한 구성, 창의적인 춤사위로 강한 인상을 남겼으며, 고혹적이며 탐미적인 안무법으로 ‘2021 대한민국무용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제33회 서울무용제 대상, ‘2010 대한민국 안무감독상’ 등을 수상하는 등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안무가로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특별출연 김진미

- 청주시립무용단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
- 세종대학교 무용학 박사
- 충청북도 문화재 전문위원
-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전수자
- 밀양검무 사사
- 2021 올해의 춤작가상 '태평청주圖'
- 2015 제36회서울무용제 '거짓말쟁이 여자, 영자' 안무상
- 2011 한국춤비평가상 춤연기상 '세치 혀'
- 2011 PAF 베스트 춤 레파토리상 '세치 혀'
- 2009 SCF 서울국제안무페스티벌 심사위원장 특별상 '갓 아래 신'
- 2008 PAF 안무상 '갓 아래 신'
- 2007 PAF 올해의 춤연기상 '잔의 울음'
- 2005 제14회 전국무용제 '아이 노래' 금상 및 개인연기상
- 2001 제10회 전국무용제 '유월의 나비' 개인연기상



박정선

- 현) 韓國舞同人會 회장
- 숙명여자대학교 졸업 및 동대학원 졸업
-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
- 제33회 서울무용제 여자연기상 수상
- 제18회 KBS 국악대경연 무용부문 장원 수상
- 제34회 동아무용콩크르 일반부 창작부문 은상 수상
- 국제 전통춤 경연대회 신인 전통부 최고상 수상
- 제5회 전국 재인춤 경연대회 일반부 창작특상 수상
- 제17회 전국대학무용경연대회대상(문화관광부장관) 수상



전건호

- 현) 韓國舞同人會 부회장 및 상임이사
전건호 창작 춤집단 휘랑 대표
충남대학교 무용학과 박사과정
- 제24회 전국무용제 '도하어' 단체 은상 및 개인 안무상 수상
- 제24회 충북무용제 '도하어' 대상 수상
- 2009~2010 아르코 아트 프론티어 선정
- 제15회 청주 신인예술상 수상
- 제15회 전국무용제 개인연기상 수상
- 제20회 전국대학무용경연대회 대상(문화관광부장관) 수상



김지성

- 현) 韓國舞同人會 상임이사
김지성 풍경 무용단 대표
청주시립무용단 지도위원
- 충남대학교 동대학원 졸업 및 박사수료
- 이화여자대학교 공연예술대학 석사수료
-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전수자
- 경남무형문화재 제21호 진주교방굿거리춤 전수자
- 제28회 전국예술대회 명무부 대상(부총리겸교육부장관상) 수상
- 제3회 균화지음 전국국악경연대회 금상 수상



홍명원

- 현) 韓國舞同人會 상임이사
춤마루무용단 대표
대전동구문화원 이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용학 석사
-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전수자
- 국가무형문화재 제12호 진주검무 이수자
- 경기무형문화재 제8호 살풀이춤 이수자
- 제21회 한국종합예술대회 한국무용 명인부 대상(교육부장관상) 수상



우정출연
박정한

- 현) 박정한무용단 대표
충남대학교 강사
(사)한국춤협회 이사
- 충남대학교 및 동대학원 석사 졸업 및 충남대학교 박사 수료
- 국가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이수자
- 제3회 김백봉 춤 보존회 전국무용경연대회 전통(군무) 금상 수상
- 제4회 김백봉 춤 보존회 전국무용경연대회 창작 금상 수상
- 2016 탄생 DANCE VISION FESTIVAL 최우수작품상 수상



김민화

- 현) 韓國舞同人會 상임이사
- 청주대학교 무용학과 졸업
-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전수자
- 제16회 우봉 이매방 전국무용경연대회 특상 수상
- 제61회 한국무용지도자협회 콩쿨 일반부 전통부문 우수상 수상



음선아

- 현) 韓國舞同人會 이사
- 청주대학교 무용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 경기도 한국무용 우수강사 표창



김은수

- 현) 韓國舞同人會 이사 및 사무국장
세종대학교 미래교육원 지도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무용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졸업
-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한영숙류 승무 이수자
- 제13회 전국무용경연대회 전통부문 금상 수상
- 벽사 국제춤경연대회 전통부문 은상 수상



송효산

- 현) 韓國舞同人會 이사
- 숙명여자대학교 전통예술학과 석사
- 제9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 민족무용-전통 심사위원특별상 수상
- 제23회 정읍사 전국국악경연대회 일반부 대상 수상
- 제5회 무등신인무용제 금상 수상
- 제14회 대한민국 전통예술무용·연희 대제전 명무부 대상(국회의장상) 수상



김혜연

- 현) 韓國舞同人會 이사
- 숙명여자대학교 전통예술학과 석사과정
- 제16회 우봉 이매방 전국무용경연대회 명무부 차석상 수상
- 2015 사단법인 남도전통예술진흥회 대상 수상



이세이

- 현) 韓國舞同人會 이사
- 용인대학교 무용과 졸업
- 제4회 국제 춤 축제연맹 전국 무용경연대회 대상 수상
- (사)우리춤협회 우리춤국제무용경연대회 금상 수상
- 제4회 국악신문사 전국 무용경연대회 장려상 수상
- 제2회 연평사 전국 국악경연대회 장려상 수상



정선아

- 현) 韓國舞同人會 이사
- 단국대학교 무용과 졸업
- 제12회 한·중 국제무용경연대회 대학부 전통부분 은상 수상
- 제17회 복사골 전국무용경연대회 대학부 전통부분 은상 수상
- FIDAF 국제춤 연맹 공쿨 대학부 시니어 창작부분 은상 수상



최유란

- 현) 韓國舞同人會 이사
- 국민대학교 무용과 졸업
-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전수자
- 2018 비엔나국제공클 금상 수상
- 제9회 한국춤협회공클 금상 수상
- 제17회 전국수리무용콩쿠르 금상 수상
-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장배 전국무용공클 전체 특상 수상



어진

- 현) 韓國舞同人會 이사
-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및 동대학원 졸업
-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전수자
- 2021 (사)한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국제무용콩쿠르 창작부문 금상 수상
- 제14회 (사)World Total Dance Association 창작부문 금상 수상
- 제14회 (사)우리춤협회 우리춤 국제무용경연대회 창작부문 동상 수상



김태희

- 현) 韓國舞同人會 이사
-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졸업
- 제45회 세종공클 전통부분 금상 수상



해설
김예림

- 무용평론가
-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
- 월간 춤과 사람들 편집위원

韓國舞同人會(한국무동인회)

예술감독 및 안무재구성	박시종	
한국무동인회	박정선	전건호
	김지성	홍명원
	김민화	음선아
	김은수	송효산
	김혜연	이세이
	정선아	최유란
	어진	김태희
특별출연	김진미	
우정출연	박정한	
해설	김예림	
음악작곡	원 일	이대희
의상	신근철	명재임
분장	윤수영	
프로듀서	이학현	
기획·행정	배희선	
홍보마케팅	강국현	
음악진행	이호현	
기록영상	지화층	
기록사진	김세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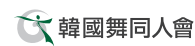
서울남산국악당

실장	최민호
기획홍보팀	이유정(팀장)
	이아랑 박예은 유예진
무대기술팀	김성수(팀장)
	이성현 노익환 박영규
운영지원팀	정장미(팀장)
	이선하 송창선 이보라

인사이트모션

대표이사	조용태
사업부문 대표	김지욱

주최/주관



서울남산국악당은 2007년 전통공연예술의 진흥과 국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건립된 300석 규모의 국악 전문 공연장입니다.



서울남산국악당
Seoul Namsan Gukakdang